

“고령화·저출산 여파 生保시장 쪼그라든다… M&A 시급”

보험연구원 생명보험 시장 보고서
수입보험료 3년 연속 감소세
시장 축소에 경쟁 심화 우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모와 증가율〉

년도	수입보험료	수입보험료 증가율
2015	117.2	6.0
2016	119.8	2.2
2017	114.0	-4.9
2018/E	108.9	-4.5
2019/F	104.8	-3.8

단위:조원·% / 자료=보험연구원

고령화, 저출산 영향으로 향후 우리나라 생명보험시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큰 만큼 보험사별로 상품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길게는 인수·합병(M&A)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1일 보험연구원의 ‘국내 생명보험 시장 축소와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윤성훈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2017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며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생명보험시장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백진지도 10월 금융보고서에서 “선진국 중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과 일본 등의 보험시장은 성장이 계속 둔화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기대수명은 지난 2008년 79.1세에서 2012년 80.0세, 2014년 80.7세, 2016년 80.8세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은 더 빠르게 올라가는 추세다. 2008년 79.6세였던 평균수명은 2010년 80.2세, 2013년 81.4세, 2014년 81.8세, 2015년 82.1세, 2016년 82.4세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은 가장 낮다. 2016년 기준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은 1.68명인데 우리나라는 1.17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꼴찌였다. 특히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일 경우 초저출산 현상을 겪는 국가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2001년 1.309명을 기록한 이후 16년간 ‘초저출산국’ 꼬리표가 붙었다.

국내 통계는 더 안 좋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 합계출산율은 1.05명(잠정)으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이같은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 2032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할 것

로 전망했지만(중위인구추계 기준) 국회 예산정책처는 총인구 감소 시기가 이보다 4년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체코, 독일, 핀란드, 스페인 사례를 보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시기를 전후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도 수입보험료가 2017년(-4.9%)부터 줄어들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2018년 -4.5%, 2019년 -3.8%로 3년 연속 감소하고 2022년까지 연평균 1.7%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생명보험 법인세차감전이익은 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의 57%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OECD 주요국의 과거 25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대여명의 증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제성장률과 금리 하락, 금융산업 규모 감소와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생명보험시장이 정체되거나 축소될 경우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M&A가 증가하는 등 시장구조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인구 고령화로 생명보험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일본은 M&A를 통한 일정 규모 이상의 보유계약 확보 필요성이 강조됐다. 1996년 진입규제 철폐 이후 1995년 31개에서 2010년 48개까지 늘어났던 일본 생보사 수는 2015년 41개로 축소됐다.

특히 일본은 경쟁력 있는 주력 상품이 회사별로 명확하고 주력 상품에 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생보사들의 상품 포트폴리오는 유사한 데다 경쟁력 있는 주력 상품이 명확하지 않았다.

윤 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시장 축소가 본격화되면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규모가 비슷한 생보사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쟁력이 있는 상품 개발 노력이 시급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문화 또는 M&A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우리은행, TF 만들고 지주사 전환 속도

인가 설립·운영방안 등 마련
은행 등 자회사 80명 발령

우리은행이 지주사 전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년 1월 가칭 우리금융지주 출범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주 전환 TF를 운영하기로 하고 최근 은행과 카드·증권 등 자회사 소속 80명을 TF로 발령했다. 지주 전환 TF는 전략, 재무, 인사, 리스크관리, 정보기술(IT) 등 부문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개최, 지주 설립 등기, 지주사 주식 상장 등 지주사 전환 관련 업무 전반을 처리한다. 내년도 경영계획과 자금조달 계획 수립, 규정 제정, IT 개발, 인사제도 마련과 같은 지주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작업도 한다.

12월 28일 주총에서 지주사 전환 방안이 의결되면 가칭 우리금융지주는 내년 1월 공식적으로 출범한다.

앞서 금융당국 인가를 얻고 지배구조 방안까지 정한 상태다.

우리금융지주가 5년 만에 부활하기 전에 해결할 현안이 적지 않다.

시급한 과제로 자본 확충이 꼽힌다. 지주사 전환으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3.8%포인트가량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주사 전환 시 자산 위험도 평가 방법을 현재 내부등급법에서 표준등급법으로 바꿔야 해서다. 은행의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산출하는 내부등급법 대신 금융회사 전체 평균을 적용하는 표준등급법을 쓰면 위험가치가 높아져 자본비율이 하락한다. 단순한 평가 방식 변경만으로 BIS 비율이 15.8%(9월말 현재)에서 12.0% 떨어진다.

우리카드와 우리증권의 자회사 전환도 마무리해야 한다. 지금까지선 우리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편입된다. 우리카드는 현재와 같은 ‘포괄적 주식지전’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오버행(대량 대가매물) 이슈가 발생한다. 우리은행이 100% 자회사인 우리카드의 주식을 우리금융지주에

넘기면서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받으면 6개월 안에 팔아야 해서다. 우리카드의 규모가 크다보니 주식지전 대가로 우리은행이 받게되는 지주사 주식이 전체 10%에 달한다. 이 정도 주식 물량을 단기간 내 팔면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에서도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당국은 지주사 전환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지주사 지분(18.4%)을 매각할 예정이다.

우리증권은 우리은행이 보유한 지분이 59.8%다. 주총에서 지주사 전환 동의에 필요한 지분율인 70%에 못 미친다. 혹시 주총에서 부결되면 전체 지주사 전환 일정 자체가 어긋날 수 있다.

지주사의 99%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은행의 비중을 낮추는 것도 숙제다.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금융지주의 주요 임무이기도 하다. 우리금융지주는 부동산신탁, 자산운용, 캐피탈 등의 인수·합병(M&A)을 우선해서 추진하고 보험과 증권 등은 중장기 과제로 삼을 계획이다.

/김민호 기자 kmh@

주금공, 적격대출에 유한책임 대출 도입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비소구) 대출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 방식을 도입해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 상품 전체에 대해 확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2일 대출 신청년부터 시행된다.

유한책임 주담대는 기존과 달리 집 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으로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다.

유한책임 적격대출은 서민·신수요자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면서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신한금융그룹, 서산·황성에 '신한 꿈도담터' 오픈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9일 충청남도 서산시에 위치한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서산시 맹정호 시장 및 시의회 관계자들, 성일중 국회의원, 신한은행 충남서부 국규한 지역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 꿈도담터'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산시 맹정호 시장(뒷줄 왼쪽에서 일곱번째)과 관계자들이 개소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2018 모두하나데이 캠페인'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9일 서울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 앞마당에서 '2018 모두하나데이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김정태 회장은 “소외된 이웃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며 “하나금융그룹 임직원들과 지자체, 일반기업이 함께하는 나눔 실천이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되고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왼쪽에서 네번째)이 정연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장(사진 왼쪽에서 여섯번째), 황성욱 롯데제과 재경팀 상무(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다문화 이주 여성, 가족사랑봉사단원들과 소외계층에 전달할 '사랑의 김장'을 담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IBK기업은행-금감원-한국정보화진흥원, 실시간 보이스피싱 시 탐지 MOU

지난 9일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IBK 실시간 보이스피싱 시 탐지 서비스의 성공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오른쪽), 이상재 금융감독원 부원장(가운데),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제56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11월 14일~12월 6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11월 17일~12월 8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11월 25일(일), 12월 2일(일), 12월4일(화)

김태영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